

# 나주시 ‘벤치마킹 원정대’,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

9개 팀 전국 우수사례 찾아 나주시 접목 모색



나주시가 벤치마킹 원정대 성과보고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직원들이 전국 지자체와 기관의 우수사례를 직접 찾아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시정 접목 가능성을 모색했다.

2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2026년 벤치마킹 원정대 성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원정대 활동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평가위원 9명과 벤치마킹 원정대 참여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9개 팀은 각 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한 우수사례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해당 사례를 나주시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벤치마킹 원정대’는 직원들이 직접 다른

지자체와 기관의 우수 정책과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과정과 운영 방식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학습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올해 원정대는 청년정책, 관광·축제, 꽃단지·정원 콘텐츠, 치유농업, 투자유치, 마을돌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전국의 지자체와 기관을 방문했다. 특히 충남 공주시 청년센터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서울 독서한강공원, 전주수목원, 제주도, 대전광역시 등 분야별 우수사례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과정과 운영 방식 등을 직접 확인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무교육 추진

화순군, 축제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담양군은 최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군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지방세 업무 교육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은 지방세 관계 법령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 부과와 체납관리 등 일선 업무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비롯해 취득세·재산세 등 세목별 업무처리 방법,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법, 고지서 확인, 민원 응대, 체납 관리 절차 등이다. 특히 인사이동으로 지방세 업무를 새롭게 맡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적응을 위해 기본 이론과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다뤘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오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별도의 개막식 없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한정된 축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의전 중심의 일회성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올해 개막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과 행정력을 축제 콘텐츠와 관람객 편의 향상에 집중해 축제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화순 고인돌 유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가을꽃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화순의 대표 가을 축제다. /남호경 기자

## 영광군보건소, 노인돌봄 종사자 자살예방 역량 강화

자살위기 신호 조기 발견·전문기관 연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사진. /영광군청 제공

하는 구강보건사업과 요실금 지원사업 등 주요 보건의료서비스도 함께 안내해 돌봄 대상자의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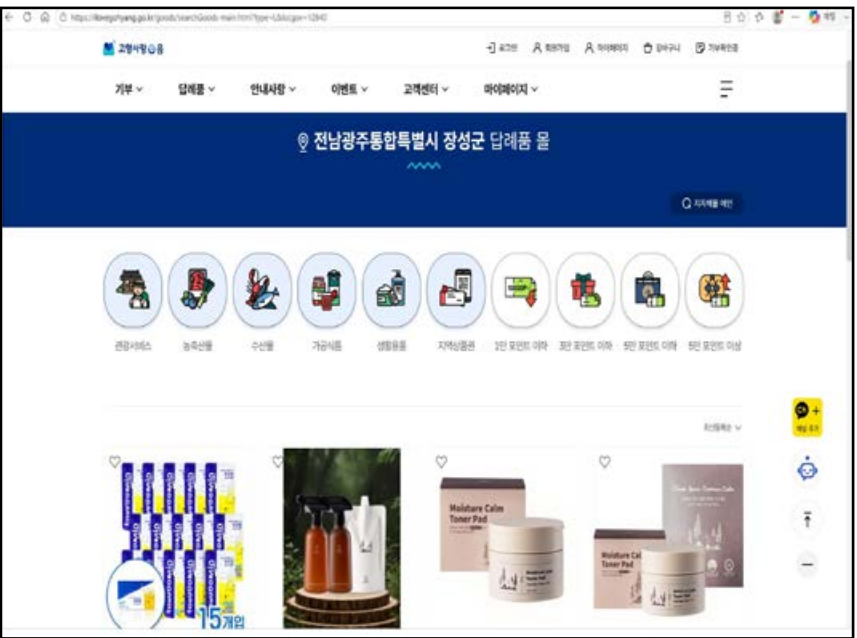
영광군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영광노인복지센터, 28일 흥농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돌봄 현장에서 자살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돌봄 종사자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중요한 생명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으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해 자살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 장성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합니다”

장성군에 사업장 둔 통신판매업 등록 업체... 9월 2일까지



고향사랑기부 누리집 장성군 답례품몰 사이트 사진.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9월 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분야는 지역특산물, 농축임산물, 가공식품부터 관광, 서비스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원 자격은 장성군에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업 등록 업체로, 장성에서 물품을 생산, 제조,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장성군 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군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달 16일까지 공급업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관광 및 체험 상품을 추가 발굴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성장에도 일조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사과, 복숭아, 귤, 전

통주, 편백제품 등 총 83개 품목으로, 지역 내 53개 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백양사 텀플스테이’, ‘고향마을 경로당 간식 보내기’ 같은 이색 답례품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성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농특산

물과 관광상품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군은 답례품의 품질과 배송 관리를 꼼꼼히 점검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